

[로얄엔필드 코리아 보도자료]

## 클래식 모터사이클의 정수 로얄엔필드,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다 2019년 4월 19일, 로얄엔필드코리아 그랜드 오픈

- 영국에서 태동해 인도에서 꽃 피운 정통 모터사이클 브랜드 로얄엔필드 공식 수입 시작
- 하남시 초이동에 위치한 로얄엔필드 코리아에서 클래식 모터사이클 시대의 서막을 열어
- 로얄엔필드의 Bullet 500, Classic 500, Classic 500 Chrome, Himalayan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정통 클래식 모터사이클 브랜드 로얄엔필드의 공식 수입 업체인 빈티지모터스(대표 이태흥)는 오는 4월 19일 '로얄엔필드코리아 그랜드 오픈(Royal Enfield Korea Grand Open, 이하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이륜차 업계에 본격 진출을 알렸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위치한 로얄엔필드코리아 본사에서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그랜드 오픈 이벤트는, 19일 오전 11시 진행된 '그랜드 오픈 미디어 데이'를 통해 그 서막을 열었다.

19일 행사에서는 국내에 선보일 3종의 모델들을 공개하는 공식 포토세션을 시작으로, 인도 로얄엔필드 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토크 세션을 통해 로얄엔필드의 브랜드 철학과 한국 시장에서의 목표 등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로얄엔필드 코리아 1호차 구매 고객을 초청해 특별 제작한 대형 키를 전달하는 감사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국내 출시 라인업의 합리적인 가격이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런칭 라인업은 로얄엔필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Bullet 500(정가 5,550,000원), Classic 500(정가 5,950,000원), Classic 500 Chrome(정가 6,200,000원), Himalayan(정가 4,950,000원) 이상 4종으로 인도를 제외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로얄엔필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총괄 비말 썬블리(Vimal Sumbly)는 "로얄엔필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에서 전년대비 20%의 성장을 이뤘으며, 우리에게 한국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며 "로얄엔필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장을 위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내 모터사이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로얄엔필드 공식 수입원인 기흥 인터내셔널의 이태흥 총괄이사는 "클래식 모터사이클 문화를 선도하는 로얄엔필드의 활용성은 다양할 것으로 확신한다. 혼잡한 도심, 레저와 투어 등 라이더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로얄엔필드는 지난 1901년 영국에서 태동해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통 클래식 모터사이클

브랜드이다. 이후 1950년대에 인도 국경 수비대가 로얄엔필드의 대표모델인 Bullet을 수입 및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 후 '순수한 모터사이클'이라는 철학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5만대에서 2018년 85만대로 16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현재 인도 내 850개 지점,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런던, 파리, 마드리드, 상파울루, 밀워키 등 38개의 도시에서는 단독 매장을 통해 독점 판매된다. 지난 3월에는 50년만에 트윈 엔진 생산을 재가동하며 콘티넨탈 GT 650(Continental GT 650) 와 인터셉터 650(Interceptor 650)을 선보이며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하남에 위치한 로얄엔필드코리아 하남 매장은 총 2층 규모로 로얄엔필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1층은 정식 서비스센터로 전문 테크니션팀이 A/S 및 정기점검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층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얄엔필드의 모든 모터사이클 전시 및 구매 상담은 물론, 로얄엔필드의 의류 및 신발,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쇼룸이 자리하고 있다.

로얄엔필드 코리아는 4월부터 선보이는 3종의 모터사이클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로얄엔필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로얄엔필드 코리아의 공식 사이트 ([www.royalenfield.com/kr](http://www.royalenfield.co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문의]

- 로얄엔필드코리아 마케팅팀 이명주 주임 (010-3137-0718, [roy@royalenfield.kr](mailto:roy@royalenfield.kr))
- 기흥모터스 마케팅팀 정진해 과장 (010-8447-4471, [justice@khg.kr](mailto:justice@khg.kr))

###

## [로얄엔필드 국내 출시 라인업 소개]



### Bullet 500

지난 1948년 탄생해 현재까지 출시되고 있는 Bullet은 로얄엔필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 단일 제품명으로는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 가장 긴 생산기간을 자랑하며, 최초 선보인 이후 시트와 포크, 엔진 등 성능 개선을 제외하고는 약 71년간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선보이는 볼렛 500 EFI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499cc 엔진과 5단 미션이 탑재되었고, 앞/뒤 모두 ABS 제동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색상은 Jet Black과 Forest Green 2종류로 출시된다.

엔진배기량	499cc, 단기통 4 사이클, 공랭식
최대출력	27.5bhp / 5,250rpm

최대토크	4.2kg/m /4,000rpm
가격	5,550,000원



### Classic 500, Classic 500 Chrome

2009년 최초 선보인 Classic 500 시리즈는 출시 직후부터 정통 클래식 모터사이클 마니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다. Classic 시리즈는 350과 500 두 종류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500 시리즈만 출시된다. Classic 500은 499cc 엔진과 5단 미션, 앞/뒤 ABS 제동시스템 적용은 물론, 스프링 고정 방식의 운전자시트는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한다.

Classic 500 시리즈는 기본형인 Classic 500과 Classic 500 chrome 이상 두 종류이며, 기본형은 총 7가지 색상, 크롬 버전은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엔진배기량	499cc, 단기통 4 사이클, 공랭식
최대출력	27.5bhp / 5,250rpm
최대토크	4.2kg/m /4,000rpm
가격	Classic 500 (5,950,000원) / Classic 500 Chrome (6,200,000원)



### Himalayan

Himalayan은 로얄엔필드 설립 이후 최초의 멀티퍼퍼스 모델이다. 멀티퍼퍼스답게 최초 개발이 시작된 2014년부터 여러 지형에서의 프론트 서스펜션과 차대강성, 시트 편의성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거쳐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411cc 엔진과 5단 미션, 듀얼 채널 ABS 기본 장착을 비롯해 고정식 윈드실드 및 리어랙, 앞 21인치/뒤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미들

급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출시 색상은 흰색 계열의 Snow, 두 가지 회색 계열의 Granite와 진눈깨비 색상인 Sleet 이상 3가지로 출시된다.

엔진배기량	411cc, 단기통 4 사이클, 공랭식
최대출력	24.5bhp / 6,500rpm
최대토크	3.3kg/m /4,000~4,500rpm
가격	4,950,000원

#### [전국 공식대리점 전화번호]

- 로얄엔필드 코리아 (경기도 하남, 070-7405-8560)
- 라이드앤롤 (서울 송파, 02-448-8289)

- 개나리오토타이 (서울 강남, 02-568-1283)
- 구로모터스 (서울 구로, 02-857-5282)
- 바이킹넷 (서울 마포, 02-3142-5333)
- 라이더스캠프 (경기도 용인, 031-328-5109)
- 제임스스퀘어 (경기도 일산, 1600-8657)
- TMR모터스 (충청북도 천안, 070-8876-8279)
- 코바모터스 (경상북도 대구, 053-767-1705)
- 라이딩원 (전라남도 광주, 4월 오픈 예정)

###